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23>

경제성장은 인간 생활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대량생산이나 대량소비와 있고, 원재료나 폐기물의 면에서도 자연자원이나 지구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인간 생활은 자연을 해치고 자연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성립하고 있다. 자연의 자정 작용을 넘어서 오염 등 자연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지구 온난화 등을 통한 기후변동을 초래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인류 존망에 관련된 보폭으로 즉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가 장래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는 지구환경이 향후에도 온전하게 보전 될 수 있을 것인지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제 1보로서 17년 전, 선진국들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모여 200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1997년 일본 교토(京都)에서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같은 목표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25% 가까이 늘어났다. 그래서 오는 12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고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 계획이다.

그런데 브라질,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많은 국가들은 미국이 코펜하겐

회의 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어디를 둘러봐도 난제뿐인 코펜하겐회의를 앞두고 상호비방만 난무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환경비용지출이 서로 결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과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물론 이에 대한 해답은 어느 정도의 기간(Time horizon)을 놓고 보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충관계'에 있다. 즉 일정한 시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파괴를 계속 야기하는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환경보전을 도모시킨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대 규모로의 경제성장은 보다 더 큰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2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는 현재의 1000억 달러 수준의 한국경제에 비하여 2배로 규모가 큰 자원 및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너지(원광석 등 광물 자원,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고갈, 물이나 삼림, 야생 동식물의 감소, 토양 상실에 따른 사막화, 생태계의 파괴 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이산화탄소(CO₂) 등의 배출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더한층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유해폐기물의 대량 배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구환경의 오염·파괴를 야기하는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벌써 많은

환경 파괴는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 훼손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기술시장 검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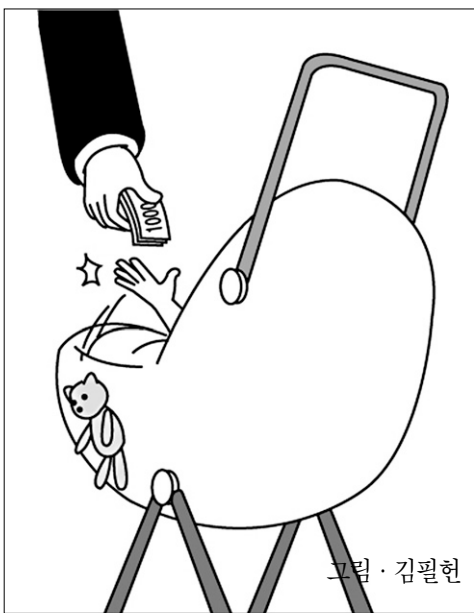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될 미래까지 포함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미래세대가 처하게 될 상황까지 고려하게 되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더 이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더라도 환경보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인 의사결정의 문제는 경제성장, 고갈자원의 수급,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의 균형을 취한다고 하는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해 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환경면에서 장래 세대에 부담을 끼치지 않도록 자원이나 환경보전에 힘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나 폐기물 처리 등의 면에서 우리 라이프스타일에게까지 감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에 부담을 끼치는 행위는 규제와 벌칙을 가하는 제도가 정비되어 기업이나 시민이 환경보호의 의미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의 배출활동에 대한 과세가 되는 탄소세 혹은 쓰레기 회수의 유료화 등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고양에 의해서, 환경보전 대책이나 관련 기술 등이 비즈니스로 성립되고 진흥되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중요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석유,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등 불안정한 국제에너지시장의 흐름은 국내에너지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연료전지, 소형 열병합, 재생가능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기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정책을 통해 소형 열병합과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주

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현상은 선진국들과는 사뭇 다르다.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온실 가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재생에너지 또는 CO₂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자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의존체제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냐 하는 논란도 있다. 원자력 발전은 세계 각국이 이미 포기하고 있고 오히려 삭감하는 경향조차 있다. 원자력 발전의 시설을 정부계획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지역주민의 반대운동이 끈질기게 발생해 가능성이 있어 입지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고, CO₂의 배출은 없다고 해도 과연 친환경적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각종 조치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령, 에너지세의 상승 등도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에너지 소비절감에 대한 절실한 노력이 유발되어 효율적인 경제구조가 구축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동대 경제학과 교수

23 코치의 과학관2

얼마 전, 중국의 장강 물길 천리, 삼협(三峡) 유럽선 관광을 다녀왔다. 상류인 중경(重慶)에서 출발해 삼협문을 갑문(閘門)으로 통과, 의창(宜昌)까지 내려오는 3박4일의 물길 여행이다. 작고한 아시아의 물계 조오련이 시도하려다 이루지 못한 '장강 종영(長江縱泳)'의 꿈길도 아마 이 길이었을 것이다.

유비가 한(漢)의 유업을 잇는 숙업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마친 내 떨어진 별이 된 백제성(白帝城). 어린 자식들을 제갈공명과 조자룡에게 부탁하는 병서의 유비, 그 눈물 겨운 모습을 타고당(託孤堂)에 진흙상(泥像)으로 빚어 재현해 놓았다.

내려다 보면 삼협의 첫 번째 구덩형(壩塘) 첫 자락의 웅장한 자태가 보인다. 붉은 투구 모양의 적갑산(赤甲山)과 검은 구름머리 오운정(烏雲頂), 두 까마득한 절벽이 버티고 서서 갑작스럽게 비세(峽塞)해진 물길을 외다리 귀신이 지키는 문, 기문(夔門)이라고 부른다. 그 사이를 걸음로는 태연한 듯, 빠른 걸음이 되어 흐르는 물길에 바로 구덩의 상협(上峽)이 된다. 옛 시인이 구덩-오(壩), 무협(巫峽)-수(秀), 서릉(西陵)-기(奇)로 일컬어 노래하던 바로 그 구덩이다. 구덩을 이야기 하거나 소동파와 왕안석의 고사를 그려 지나칠 수 없다.

소동파가 사천(四川)의 부친상을 끝내고 물길로 온다는 것을 알

허탈의 불교와 코칭

게 된 당시의 재상 왕안석이 서신을 보내어 구덩 중협(仲峽)의 물 한 단지를 떠오도록 부탁했다. 왕안석은 당시 위병을 앓고 있었는데 궁중 의사의 처방이 이 병은 양선차(陽羨茶)라는 차를 달여 마셔야 고칠 수 있었는데, 반드시 구덩 중협의 물을 사용해 끓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탁을 받은 동파가 구덩형을 빠른 배로 지나는데, 웅장한 구덩형의 모습에 끌려 이를 완상(玩賞)하다가 중협을 지난 때에는 물 길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 생각을 해냈을 때는 배가 이미 하협(下峽)에 이르고 있었다. 뱃사공에게 부탁해 배를 돌리려 했으나, 물살 따라 화살처럼 가는 배를 어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수 없이 장강의 물이 상·중·하협 모두 이어 흐르는 것은 물인데 꼭 중협의 물을 떠야 할 것이 무엇이라 스스로 발명하고, 하협의 물 한 단지를 대신 길어 봉하여 왕안석에게 가져가게 되었다.

왕안석이 사의(謝意)를 표한 후 곧 하인에게 단지를 열도록 명한 병의 물을 떠서 끓이고 양선차 한 줌을 퍼서 끓는 물 속에 넣으니, 차색(茶色)이 반 식경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타났다. 왕안석이 이를 기다려 물기를, "이 물을 어느 곳에서 떠왔습니까?"

소동파는 부득불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 "중협입니다."

안석이 다시 물기를, "정말 중협입니까?"

동파는 파탄이 난 것을 알았으나, "예, 중협입니다." 라고 우길 수 밖에 없었다.

왕안석은 머리를 흔들고 기이하게 웃으면서, "이것은 하협의 물이 분명합니다. 자천(중파의 재)께서는 왜 노부를 속이십니까?"

동파는 깜짝 놀라서 곧 물 길던 진상을 일일이 말하고 나서, 다

시 용기를 내어 물기를, "제가 우매하여 그러하였으니, 삼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재상께서 어떻게 이것이 하협의 물인지 그 가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왕안석이 솔직한 동파의 사과에 노기를 거두고 말하기를, "구덩의 수성(水性)은 <수경보주(水經補註)>라는 책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상협의 수성은 너무 급하고, 하협의 수성은 너무 느슨하니, 오직 중협의 물만이 완급이 반반이라 수성이 중화(中和)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물로 양선차를 끓이면 상협의 맛은 짙고, 하협의 맛은 담담하며, 중협의 맛은 그 사이인데, 차색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반드시 하협의 물임을 알았습니까?"

지난 회에서 어중잡은 과학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는데, 그만 삼천포로 빠져서, 코칭계 일각에서 충분한 임상(적) 입증 없이 무의식 세계에 무단 접근함으로써 코칭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마쳤었다. 불교 수련 중 자칫 빠지기도 하는 선병(禪病), 무병(巫病)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눈 밝은 선지식들의 노력이 꾸준함에 비해 코치의 율리강령에서는 코칭과 정신의학, 상담의학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코칭과 종교행위 사이에는 경계 설정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눈에 뜨인다.

나는 위의 고사에서 떠올릴 수 없는 것들을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었다. 어떤가, 코치와 지망생, 고객 여러분은 이 고사에서 나름대로 어떤 배움을 얻은 것이 있었는가? ■한국코칭센터 고문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정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룬다.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늦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별법 : 뇌수수체에 흡수된 아뢰아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부터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반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이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렵듯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효 체험신청하세쇼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구단구궁법

※ 테이프 출시 (교재 및 요점 상세히 설명)

- ◎ 구궁술로 1분안에 길 흉성패 명운을 꿰뚫는다.
- ◎ 타지방에 계신분은 교재와 테이프 공부 (교재 및 테이프 가격 30만원)
- ◎ 직접레방 개인지도 (4주완성 수강료 50만원)
- ◎ 계좌번호 부산은행 233-12-045334-2 (박옥군)

금어산방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916-7
(051)554-6040
010-8569-5695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실법

풍뎡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끼적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